

사회

“어려울수록 나눠야죠”

사회복지 성금 모금 운동 ‘스타트’

광주 20억5천만원
전남 48억원 목표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더욱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운동’을 일제히 시작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는 3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정문에서 박광대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출발-사랑의 행복 온도담 제작식 행사’를 갖고, 각급 기관과 단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모금 운동은 ‘나눔은 행복 투자입니다-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모금 목표액은 20억5천만원이

며, 13개 신문·방송사 등 언론기관과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를 통해 모금한다. ARS(060-700-1212)를 이용한 모금도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또 광주시와 공동모금회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한 지로용지를 통한 모금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별생방송 등을 통한 모금도 펼칠 예정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도 올해 48억원(전년도 47억2천500만원 대비 101.6%)을 목표로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을 펼친다.

시·군 지역 모금활동을 위해 나눔가 캠페인을 전개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통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모금을 독려하고 목포·순천지역 톨게이트에서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입구 4거리에서 ‘사랑의 행복 체감 온도담 제작식’을 열고 나눔캠페인 참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단협 해지 철회”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 대회’. 1천200여명의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조합원들이 정원감축 반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위정각기자 jrwi@kwangju.co.kr

철도파업 장기화 여객·화물 ‘비상’

화물연대 “대체수송 거부”... 검찰 전면 수사 나서

전국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역 통근 열차가 일부 중단돼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물열차 운행률도 평소 대비 25% 수준에 그치면서 물류 수송난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의 발을 불모로 파업이 계속되자 검찰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여차 구니없어 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6시 55분 광주역을 출발, 목포역으로 가는 열차를 탈 예정이었다.

정씨는 곧바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정씨처럼 운행이 취소돼 열차를 놓친 승객은 수백 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역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승객들로 하루 종일 고성이 오갔다.

항의 소동이 벌어졌던 이유는 지난달 29일부터 여객열차를 운행하던 인력을 화물열차로 돌린 탓이다.

코레일 광주와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여객열차 운행 횟수는 광주의 경우 평상시 87회에서 75회로, 전남은 52회에서 40회로 줄었다. 대신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4회 늘렸다. 광주본부는 평소 16회 운행하던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파업 이후 전면 중단했다. 평소 대비 운행률은 25%이다. 파업이 길어지자 열차 ‘돌러막기’로 일부 화물 수송을 대체하고 있으나 물류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퇴직 기관사와 군 병력, 철도대학생 등 상당기간 현장을 떠나 있었거나 경험이 부족해 열차 운행에 미숙한 외부 대체인력까지 투입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본부의 경우 전체 인력 1천 68명 중 426명이 대체 인력이다.

화물연대, 대체 수송 거부=전국 화물차주 1만5천여 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대체수송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철도화물 수송량의 대체 운송을 전면 거부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 운송분담률은 전체 화물운송물량의 6.2%이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부문의 경우 10.4%가 철도를 이용해 운송되고 있다.

검찰, 철도노조 파업 전면 수사=대검찰청은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광주와 전남본부는 지난달 26일 핵심 조합원 20명(광주 15명, 순천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북부경찰과 순천경찰 등에 고소했다. 전국적으로는 182명이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외교·국제교·국제중 폐지 법안 발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

외국어고와 국제고, 국제중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국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국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특성화중의 경우 과학·예술·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교 대책은 결국 외교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 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에 힘을 때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교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 10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교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천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산수동 옛 어린이놀이터

국민체육센터 탈바꿈

동구청, 51억 들여 건립

젊은층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폐허로 방치되다시피했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옛 어린이놀이터가 국민체육센터로 탈바꿈한다.

광주시 동구청은 구도심 주택가의 활성화를 위해 동구 산수동 농장다리 인근 옛 어린이놀이터에 51억원의 예

산을 들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신축되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11년 완공된다.

이날 열린 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동구청이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설계안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도심 단독주

택들이 노후화된데다 노인·저소득층이 대다수인 거주민들의 복지여건이 열악해 국민체육센터라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을 결정했다”며 “방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부지로 활용에 예산도 크게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신축안, 남구청사내 남구의회 신축안,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탁구장 증축 등 5가지 안건을 모두 조건부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나해부터 본격 가동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공공시설물 외관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맑고 포근해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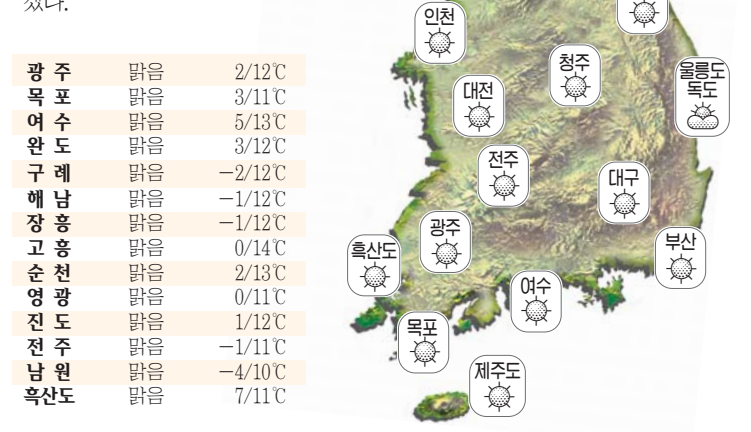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주간날씨' (Daily Weather) with a 7-day forecast.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

심근경색증 치료 잘 하는 병원

전남대병원 1등급 선정

제왕절개 낮춘 병원, 조산대병원 2등급. 전남대병원이 전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 중 1등급으로 선정됐다. 조산대병원은 3등급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 평가 등급(1~5등급)에 속한 병원은 전남대 병원과 조산대병원 등 2곳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30일 43개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2008년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 확인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 병원은 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단국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 연세대강남세브란스,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이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분만을 낮춘 병원 평가에서는 전남대병원과 조산대병원이 나란히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abra car wash. Features a white car and yellow bottles of Sabra car wash solution. Text includes '경유용 다목적 첨가제' (Diesel Multi-Purpose Additive) and '소액 자본금 투자로 확실한 고소득 창출' (Generate high income with small capital investment). Contact information for Sabra Car Wash is provided at the bottom.